

# 새한, 일류상품 집중육성 매출확대

## 5대 핵심사업 매출액 8700만달러 목표 ... 비수익 부문 과감히 철수

새한이 2002-2003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5개 제품을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새한(대표 박광업)은 2002년 Polyester 난연섬유와 충전용 고벌키성 중공섬유, 2003년 신축성 양면 인조세무직물, 내오염성 역삼투분리막에 이어 Poly Rayon 신축성 직물이 산업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됨에 따라 5개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2004년에는 87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섬유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후발개도국과 품질경쟁력을 앞세운 선진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화·고기능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을 한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새한이 가장 큰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Poly Rayon 신축성 직물인 <베스모(BESMO)>이다.

<베스모>는 합섬혼방이지만 모직물과 같은 감촉을 지니며, 양방향 신축기능(Two Way Stretch)으로 편안함과 활동성을 부여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특히,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로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편의성을 중시하는 미국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계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새한의 Poly Rayon 신축성 직물 사업은 2003년 매출액 2300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100만달러 이상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새한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전망

(단위: 만달러)

제품명	세계시장 점유율	2003	2004
Polyester 난연섬유	5%	1000	2000
충전용 고벌키성 중공섬유	60%	2000	3000
신축성 양면 인조세무직물	83%	800	1000
내오염성 역삼투분리막	6%	170	300
Poly Rayon 신축성 직물	23%	2300	2400
합 계		6270	8700

2004년 매출액 2000만달러를 계획하고 있는 Polyester 난연섬유 <에스프론(ESFRON)>는 화재 시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고 염색·가공·세탁 후에도 난연성의 저하가 없으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물책임법(PL법)이 발효됨에 따라 합성섬유 제품에서도 난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추세여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내오염성 역삼투분리막은 미국 Dow-Chemical, Hydranautics 등 소수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는 첨단 제품으로, 새한은 2002년 국산화 성공 이후 국내시장을 50% 이상 점유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기물로 인한 부착현상으로 제품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최소화했으며 세척주기(Cleaning In Place)가 길어져 분리막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밖에 충전용 고벌키성 중공섬유는 섬유 내부의 홀(Hole)이 차지하는 비율(중공율)을 3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단위 무게당 부피를 극대화해 오리털, 양모 등의 대체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머리카락 굵기 1000분의 1 수준의 초극세사를 사용한 신축성 양면 인조세무직물 <아수아(ASUA)>는 인조 스웨이드(Suede)에 신축기능을 부여해 유럽의 여성용 토탈 패션에서 기능성 신타입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새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비수익사업을 철수하고 고수익 차별화 제품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 결과 여러 가지 일류상품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9>